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여섯 번째

잠든 죽은 자들의 부활

Jeff Pippenger

2023-10-27

우리는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으로 시작된 지체하는 때를 지목하며 이사야서 40장에서 시작되는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을 바탕으로 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의 죽음을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있는 죽은 자들과 대응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거리에서 살해된 자들의 부활과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사건의 순서를 반복을 통해 확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적 구절들을 서로 맞추어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식되지 않았던 요한계시록의 부분들의 봉인을 열고 있다. 이는 이 기별이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간이 마감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 해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성취되어 가는 요한계시록의 진리들의 봉인을 여는 가운데, 우리는 계시록에서 요한의 사명으로 규정된 바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본 것들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은 당시 존재하던 것들이었고, 그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요한은 동시에 장차 있게 될 일들도 기록하게 되는 것이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1:19.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 있어 논리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 이해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사람이 이미 확립된 진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진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전하도록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처음의 올바른 진리 이해가 전통이나 관습으로 굳어질 수 있다. 전통이 되어버린 진리는 라오디게아에게 주어진 메시지에 나타난 눈먼 상태를 낳을 수도 있다. 원래의 진리는 여전히 진리이지만, 그 진리가 시간이 지나며 전개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눈먼 상태를 만들어 낸다. 진리가 그들의 눈멀음의 원인은 아니며, 눈멀음은 단지 그 원인의 증상일 뿐이다. 그 원인은 전통과 관습의 안락함에 스스로 만족하는 이들 안에 있는, 들으려 하지 않는 귀와 보려 하지 않는 눈, 그리고 회심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실 때, 친히 그 근원이 되시어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던 옛 진리들을 제시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그 진리들 위에 새로운 빛을 비추셨다. 그 의미가 얼마나 달라 보였던가! 그분의 설명으로 인해 빛과 영성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들은 그 진리를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에덴에서 구속의 첫 약속이 선포된 이래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 그리고 중보 사역은 인류가 줄곧 연구해 온 주제였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각 사람은 이 주제들을 신선하고 새로운 빛으로 제시해 왔다. 구속의 진리는 끊임없는 발전과 확장이 가능하다. 비록 오래되었으나 늘 새로우며, 진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더 큰 영광과 더 강력한 능력을 끊임없이 드러낸다.

모든 시대마다 진리에는 새로운 전개가 있으며, 그 세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옛 진리들은 모두 필수적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펼쳐져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옛 진리를 이해할 때에만 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밝히고자 하셨을 때,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게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다.' 누가복음 24:27. 그러나 옛 진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진리가 새롭게 펼쳐질 때 비추는 그 빛이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은 사실상 옛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 그에게서 옛 진리는 생명력을 잃고 그저 생기 없는 형식으로 전락한다.

신약을 거절하면서도 구약의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 그러므로 그들의 구약에 관한 가르침조차도 진정한 능력이 없다.

"복음을 믿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비슷한 오류에 빠져 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제쳐두는데, 그 성경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곧 그것들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요한복음 5:39. 구약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사실상 신약도 거절하는 셈이다. 둘 다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복음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없고, 율법 없이 복음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도 없다. 율법은 복음이 구현된 것이요, 복음은 율법이 펼쳐진 것이다. 율법은 뿌리요, 복음은 그것이 피우고 맺는 향기로운 꽃과 열매이다." Christ's Object Lessons, 127.

'옛것은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새것은 거부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바는, 성경 전체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예언의 영의 저술을 거부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적용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성경과 예언의 영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함께 참여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요한계시록 1:9.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영, 곧 엘렌 화이트의 저술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의 저술에서 앞서 인용한 구절이 내가 다루고 있는 쟁점을 지목한다. 그녀는 "구속의 진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장될 수 있다.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새롭고,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더 큰 영광과 더 강한 능력을 끊임없이 드러낸다"라고, 또 "모든 시대에는 진리의 새로운 전개가 있으며,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썼다.

일반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통상적 이해가 진리이기는 하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는 말세에 대한 증언이다. 우리는 지금 봉인이 열리고 있는 진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진리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구절이 말세에 봉인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이 프랑스 혁명에서 성취되었다는 이해는 재림주의가 견지해 온 것으로 옳으며, 화이트 여사도 그 올바른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 진리는 단지 말세를 예증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의 역사였을 뿐이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러한 예언적 현상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일곱 우레의 숨겨진 역사를 지침으로 삼아, 에스겔 37장, 이사야 40장, 요한계시록 11장을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와 함께 결합하고 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언적 사건들의 순서에 대한 적용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예언적 흐름은 그리스도의 흐름에서도 발견되며, 그 안에는 보조적 증거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서른 살이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는 신약의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기름부음 받은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건대, 여러분도 아는 그 말씀이 요한이 전한 세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37-38.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기름부음을 받으시기 위해 준비하셨고, 세례 때 기름부음을 받으신 후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3일 반의 예언적 기간 동안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 후에 그분은 죽임을 당하셔서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분의 3년 반 사역의 시작은 그분의 세례였고, 그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그분의 1,260일 사역이 끝날 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는 그분이 시작이자 끝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또 다른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는 온 세상에 전한 강력한 군대를 일으켰다.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인 가톨릭 교회도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3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508년에 '매일의 것'이 제거되었다.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1930년대에 '매일의 것'에 대한 배도한 개신교의 사탄적 견해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서에서 '매일의 것'에 대해 밀러파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직접 알려준다.

그때 나는 'daily'(다니엘 8:12)와 관련하여 'sacrifice'라는 단어는 사람의 지혜로 첨가된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께서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심판의 시간'의 외침을 전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초기 저술, 74.

'daily'는 이교를 의미하며, 이교 로마는 교황권이 지상의 왕좌에 오르는 것을 억제하고 막았던 세력이었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예언되었고, 이후 역사로 확인되었으며, 이어 천사들이 윌리엄 밀러에게 그렇게 계시했고, 또 엘렌 화이트에 의해 확증되었듯이, 508년에 교황권의 부상을 억제하던 이교의 제약이 제거되었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538년에 권세를 받기 위해 30년 동안 준비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모두 권세를 받기까지 30년을 준비했다. 교황권이 538년에 권세를 받자, 그리스도께서 삼

년 반 동안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처럼, 예언적 기간으로 삼 년 반 동안 죽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프랑스 혁명사의 맥락에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했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게도, 예언적 기간으로 사흘 반 동안 예언할 권세가 주어졌다.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 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1:3.

1798년에 예언적 1260일이 지난 후, 적그리스도는 죽을 상처를 받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1260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두 증인이 1260일 후에 거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

셋째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을 입는 것, 곧 그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셋째 날에 일어났고, 두 증인의 부활은 삼일 반 후에 일어났다. 여러 예언적 증거에서 셋째 날은 일요일 법령의 상징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상징적으로 셋째 날에 부활한다.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부활하고, 바다 짐승의 표가 시험이 된다. 그때 유엔, 곧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은 열 왕들 가운데 선두인 미국의 지시 아래, 교황권이 세상의 왕좌에 오르는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삼중 연합의 머리로 세울 것이다.

마지막 위기에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도구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불화로 가득하다. 그러나 한 머리, 곧 교황권 아래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증인들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은 대배도자에 의해 굳게 결속된다. 그는 진리를 대적하는 싸움에 자기의 대리자들을 결집시키려 하면서, 동시에 그 진리의 옹호자들을 분열시키고 흩어 버리려 할 것이다. 질투, 악의적 추측, 험담은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그가 부추기는 것이다. 증언 7권, 182쪽.

적그리스도가 부활하면 지상의 왕좌에 올라, 이세벨이 아합을 갈멜산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아마겟돈을 향한 행군에서 삼중 연합을 이끈다. 시편 기자 아삽은 유엔을 대표하는 열 나라를 하나님의 원수들로 이루어진 사악한 동맹으로 지목하며, 그들이 그들의 '머리'를 높이 드는데, 그 '머리'는 '교황권'이다.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며, 묵묵히 계시지 마시며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하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간계로 꾀하며 주의 감추신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나라로서 끊어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연합하였나이다.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 족속과 모압과 하갈 사람들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의 거민들이며, 또한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을 도왔나이다. 셀라. 시편 83:1-8.

그때 세 천사의 기치가 하늘 한가운데에서 나부끼고 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며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 말하였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 큰 성 바벨론이여!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큰 소리로 말하였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는 그 분노의 잔에 섞임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고,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으로 쉬이 없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 요한계시록 14:6-12.

그때 세 천사의 기치가 하늘 중천에 휘날리겠지만, 곧 유엔의 열 왕들에 의해 적그리스도가 하늘로 높이질 것이다. 그 기치는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전통과 관습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다. 세 천사는 인류에게 교황권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인 미국은 온 세계가 바로 그 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